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농식품부, 코로나19 방역 고려 260억원 우선 배정 추후 활용 2월 완료 사업 참여 국민 카드사 응모 등 이번에도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배달업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24일 10시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5~600명 수준에서 정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일상 속 집단 감염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배달) 방식의 외식 할인을 우선 개시한다.

이 사업은 카드사에서 배달업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행사 시 500만명이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행사에도 그대로 인정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참여 배달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공공) 배달특급, 팜플,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고 배달을거져 ▲(공

공·민간 혼합형) 위메프오, 먹깨비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아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총 14개 배달앱이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행사에 260억원을 우선 배정(총 사업비 660억원 중 약 40%)했으며,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배달 등 비대면 외식 수요가 늘었고,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대면 외식 지원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감소된 매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많은 음식점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비대면 외식 지원 우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 연계 행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2월말 완료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한 국민들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이번 행사에도 연속해서 적용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

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 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한편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돼,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전히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한해 풍년을 기원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청계근로청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서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모를 심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내 기술금융 생태계 활성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와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이하 전북센터)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의기투합'한다.

이들 기관은 24일 전북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전북지역 투자자 활성화 및 유망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유망기업 공동 발굴 ▲맞춤형 투·융자 협력, ▲기술금융 후속협력 고도화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등 기술금융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향후, 자금이 필요한 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DB 구축을 시작으로 전북특구와 전북센터는 투자 수요기업에 대

한 IR 컨설팅, 투자IR 공동 개최, 투자자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북은행은 발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계 상품을 모색하고, 금융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한 융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철 전북특구본부장은 "본 MOU를 시작으로 지역 내 기술금융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를 다수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 및 전북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금융지원이 혁신 주체 간 협력으로 더욱 확대되고, 지원되는 선순환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온실 해충 진단, 이제 인공지능으로

나방류 4종 진단 정확도 90% 이상... 농진청, 자동 진단 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채소 작물 재배 온실에 발생한 해충 밀도와 종류를 영상으로 진단하고 스마트폰으로 농장주에게 방제 시기와 방법까지 제시하는 '해충 통합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담배나방과 굴파리 같은 해충은 시설재배 농가에서 일년 내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은 데다 약제를 자주 쓸 경우 생기는 저항성 문제로 방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은 스마트 트랩(포획장치)과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다. 먼저 스마트 트랩에는 생체로몬 물질 4종과 엘디(LED) 유인등 4개를 달았다. 이를 통해 낮에는 해충이 다른 성(性)에 특이 행동을 보이는 특징을 활용하고, 밤에는 해충이 파장에 따른 빛에 반응하는 특성을 활용해 해충을 잡도록 했다. 트랩 안에 설치된 카메라는 유인된 해충을 촬영한 뒤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사진을 서버 컴퓨터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한다.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담배나방, 나방, 담배나방, 과방나방, 파리류, 4종의 해충을 진단할 수 있다. 적용 결과, 해충 진단 정확도는 평균 9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집착(끈끈이) 트랩보다도 해충 유인력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충 유인력이 높으면 예찰력을 높일 수 있어 작물 피해와 약제 살포 횟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방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충 통합 진단 시스템은 해충 진단뿐 아니라, 주간 해충 정보, 온실 온·습도 분포, 작물 약제와 안전 사용 기술 예찰 방제 기술 정보 등 해충 방제를 위한 다양한 자료도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제공한다.

현재 경남 함안의 파프리카 농업 법인(2.5ha)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중이다. 앞으로 병해충 빅데이터 분석 기술, 무인 자동 약제 방제 시스템과 연계해 대규모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공간정보 연구사례 공유·산학 연구거버넌스 본격화

LX, 28일까지 '공간정보의 미래, 컨퍼런스 2021' 개최

공간정보의 다양한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산·학과 함께 연구거버넌스가 본격화되는 온·오프라인 연구 축제가 열린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손종영)은 24일부터 28일까지 '공간정보의 미래, 컨퍼런스 2021'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하던 연구 성과 발표회 형식에서 탈피하여 5일 간 컨퍼런스 주간으로 지정해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크게 ▲산·학·연 전문가 패널 참여 토론회 개최 ▲공간정보 연구원의 대표 11개 연구 성과(2020년도)가 실명 영상으로 제작돼 송출된다. 이 영상은 연구를 책임졌던 연구원이 출연해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의 연구이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사전에 촬영했으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인터넷방송국(LIBS, lbs.lx.or.kr), 유튜브

채널(LXTV 국토인터넷방송국)을 통해 해당 컨퍼런스 주간동안 국민들과 만나게 된다.

컨퍼런스의 포문을 여는 첫 날은 "공간정보연구원의 미래 역할 및 산·학·연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경열(민간업체, 공간정보기술 대표)한국공공정보산업진흥조합 이사장) ▲박민호(학계, 목포대학교 교수/한국지적정보학회 회장) ▲이강원(민간업체, (주)새한 GSI 대표/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산업정책위원장) ▲임은선(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희재(학계, 백석대학교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등 전문가가 모여 "공간정보 연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

그 밖에 LX공간정보연구원은 컨퍼런스 주간에 선보인 주요 11편의 연구영상을 "교육 영상"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 영상은

지역·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해 활용될 계획임을 밝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내달 30일까지 검진 가능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검진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조정길 진료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검진기관의 내원이 망설여질 수 있지만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도 놓여질 수 있다. 특히 암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진을 무조건 미루기보다는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한 안전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31일까지 'NH모바일블렌치 OX퀴즈' SNS 이벤트

농협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등서 참여 가능... 200명 추첨 경품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오는 31일까지 'NH모바일블렌치 OX퀴즈'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농협은행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등재되어 있는 NH모바일블렌치 관련 OX퀴즈 이벤트 게시물이 댓글로 정답을 작성한 고객 중 총 2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NH모바일블렌치는 별도의 앱이나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금융상품 가입부터 환전 신청, 신용카드 신청 등의 업무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터넷 포



털사이트 검색이나 직원이 제공하는 QR코드, 상품 안내장 QR코드 등 다양한 경로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홍콩 현지 한우고기 뷰티영상 '눈길'

바이오통합진흥원 한우수출연구 사업단

'CoolCool Frozen Food Limited' 참여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한우수출연구 사업단(단장 이승제, 이하 사업단)은 한우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홍콩의 CoolCool Frozen Food Limited (CEO Oscar Tang)은 '홍콩시장에서 한우고기 부위별 소개 뷰티영상과 한우고기 활용 레시피 영상'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해왔다. 24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한우수출연구 사업단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으로,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전략기술훈수출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우고기 수출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영상에는 홍콩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한우고기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한 한우고기 활용 한식 레시피 10종과 홍콩식 레시피 10종을 담고

있다. 주로 홍콩 내 마트와 한우 전문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홍콩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북경어와 광둥어로 제작됐다. 해당 영상은 사업단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레시피 등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사업단은 한우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한우고기 수출과정 중 예로기 술 해결과 한우고기의 품질 및 우수성을 해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2020년 CoolCool Frozen Food Limited와 한우고기 수출 국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홍콩으로 한우고기 수출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aT,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27일까지 온라인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2021년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박람회 개최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하반기 정상 개최 일정에 맞춰 독일 필름(Amiga, 10월), 중국 상하이(국제수입, 11월), 베트남 호치민(Foodexpo Vietnam, 11월) 등 총 7회 박람회의 통합한 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농림수산물수출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로,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통관한국관 내 1개 부스를 지원받는다. 또한 신선농산물 3백만원, 가공식품 100만원 한도로 운송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aT가 참가하지 않는 국제식품 박람회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개별적 참가를 지원하는 '개별박람회' 참가업체도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참가 지원항목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참가할 수 없는 박람회는 수출업체들을 대신하여 제품은 박람회 현장에 실제로 전시하고, 현지에서 상품설명과 바이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MD를 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 수출입체중합지원시스템(gtbl.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도심 유희토지 활용 숲 조성 나무심기 간담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4일, 도심 유희토지 활용 숲 조성 나무심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산림청과 지역 산림조합과의 도심 유희토지 활용 숲 조성 나무심기 공동 캠페인 전개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조준규 서부청장은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를 대상으로 신규 산림조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숲의 탄소흡수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청은 오는 28일 광주광역시 남구 일원의 도심 속 유희토지에 산딸나무와 단풍나무 및 철쭉 등 100여 그루를 심는 행사를 갖는다. /남원=김기두기자